

‘지글지글’ 음식 요리하며 화해·소통 ‘모락모락’

연극 ‘방문’의 음식 메시지… 양념으로 재운 돼지고기의 목살이 오븐에 구워지며 해묵은 감정마저도 풀려

‘육방’이 방송을 접어삼기고 있다 무대 위에는 진작부터 음식과 요리는 단골 손님이었다. 공연장 안에서 배우들이 조리하고 음식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관객의 시각·청각은 물론 오감 이 극에 사로잡힌다.

재일교포 극작가 겸 연출가 정의신이 쓰고 연출한 연극 ‘아키나쿠 드래곤’의 지글지글 구워지는 곰창 냄새는, 경계에 선 재일 한국인들의 아픔을 그나마 물렁물렁하게 만든다.

일본 만화가 아베 야로의 동명 만화가 일작인 뮤지컬 ‘심야식당’에서는 음식 자체를 빼놓을 수 없다. 신주쿠 뒷골목에서 간판도 없이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문영되는 작은 식당에서 위로 받는 이들의 이야기다. 비엔나 소시지, 계란말이 버터 라이스 등 일작 심야식당에서 소개된 음식들이 실제로 요리되고 선보일 때 극 중 배역뿐 아니라 관객들도 음식과 관련한 추억 속에 잠긴다.

꿈과 열정이 사라진 386세대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뽕날’에서도 음식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주요 동력이다. 30대 중반인 지호·정숙 딸의 돌 잔치날에 친구들이 모인다. 실제로 전을 부치고 갈비찜과 잡채, 나물 등이 무대 상위로 올라온다. 사실적이고 향수를 자극

한다.

이 음식들이 뚝이 나면서 지호, 정숙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한다.

이처럼 무대 위 음식은 눈요깃거리가 아니다. 극의 분위기와 인물들의 감정선을 대변한다.

최근에는 연극 ‘방문’이 대표적이다. 미국에 살던 ‘진영’이 한동안 소통 없이 지낸 형인 목사 ‘진석’의 급한 연락을 받고 7~8년만에 집으로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집에 도착하고 보니 연로한 아버지가 없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 오랜만에 만난 형은 식사준비로만 부산한다.

‘방문’은 여러 갈등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다. 동네 교회의 원로목사인 아버지와 은퇴한 담임목사인 형은 아픔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다. 가장이 점차 붕괴하는 신호다. 이로 인해 교회의 부목사 권사 등 이웃들과도 오해가 쌓이고 갈등은 점차 커진다.

음식이 그런데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소금뿐만 아니라 설탕까지 번갈아가며 재운 돼지고기의 목살 부분이 오븐에 점차 구워지고, 냄새가 점점 객석까지 퍼질 때 인물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화해하게 된다.



연극 ‘방문’의 소통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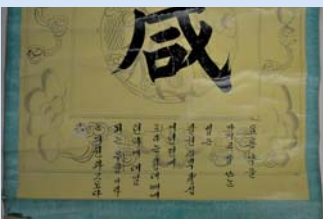
마지막 장면, 식탁에 둘러앉은 인물들이 얇은 빵 위에 고기 한두점을 넣고 여러 채소와 소스까지 얹어 싸 먹을 때, 인물들 사이의 해묵은 감정까지 저 밑으로 내려간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함께 준비하고 같이 나눠 먹는 과정이 곧 화해에 이르는 길과 같다는 걸 증명한다. 음식은 단순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인간 관계와 소통 역시 마찬가지다.

2015 연극 창작신설 우수작품제작지원, 시범공연지원 선정작이다. 21일까지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배우 이효재, 김승철, 김정호, 김성미, 강진휘, 이서림, 김기범 연출 박정희, 작가 고영범, 무대디자인 여신통 러닝타임 100분, 3만원. 마케팅컴퍼니 아침, 02-515-1217 /인진수 기자

‘고종황제 하사 족자’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이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등록문화재 제656호로 등록하고 ‘간호교과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19세기 말 정부(대한제국)가 고종의 주치의인 에비슨(1860~1956)에게 하사한 것이다. 에비슨은 1893년 8월 말 서울에 도착한 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10년간 왕실 주치의로 활동한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인이다.

이 족자의 특이한 점은 족자 가운데에 적혀 있는 ‘부양제요제시무함 扶養濟濟醫藥特許狀’과 족자 오른쪽에 하사받은 사람을 명시한 ‘의비신 대인 각하 宜正大人 閣下’의 위쪽에 각각 ‘부양제요제시무함’, ‘의비신 대인 각하’와 같이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함께 적어 놓았다는 것이다. ‘의비신(宜正)은 에비슨의 한자명 표기 중 하나

다.

또 족자의 아랫부분에도 가운데 글귀(授與濟濟醫藥特許狀)의 뜻을 9행에 걸쳐 한글로 작게 풀어 놓았는데, 이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에비슨이 고종의 시의(侍醫)를 지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족자다. 아울러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학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이며 에비슨의 후손들이 기증한 문화재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등록 예고된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 ‘간호교과서’ 상권(1908년 제작)과 하권(1910년 제작)은 마거릿 제인 에드먼즈(1871~1945)가 간행한 책이다. 에드먼즈는 12월 보구여관(1887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에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간호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간호원 양성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재도 없어 어려움이 따랐으며,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에드먼즈는 간호교과서 상·하권을 발행했다.

의학사 연구뿐 아니라 20세기 초의 의학용어 한글 번역과 우리말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인진수 기자

창작준비금 300만원 어떻게 받을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지원사업 설명회 15일 개최

2016년 예술인 복지사업은 어떻게 추진될까?

정부는 예술 활동 수입만으로 안정적인 창작 활동 유지가 힘든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5% 증액된 120억원을 배정했다.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시킨다. 지난 3년간 7191명의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준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40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예술인 산재보험’은 10등급에서 12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예술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재단은 현재 등급별 보험료의 50%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예술인과 협·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업 기간, ▲심사 기준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사업에서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설명회에 예술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재단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예술인들에게 충분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일정은 추후 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 공지하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 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62126)로 신청을 하면 된다. 재단은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600석 규모의 아르코예술극장 강사를 옮겼다. /인진수 기자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문화부, 785억 투입… 15일부터 순차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016년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와 함께 개시한다. 오는 15일부터 지역별로 순차적 발급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민이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해지는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 가는 문화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다. 785억원이 투입되는 ‘문화누리카드’는 올해 153만 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하여 여행,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6세 이상)으로 연간 5만원의 문화행유 비용을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전 카드를 가지고 가면 재충전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의 카드 발급과 재충전 신청은 15일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3월 4일, 서울 지역까지 6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5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된다.

문화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문화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민요와 비보이들의 춤의 만남

14일 오후 5시10분 KTV ‘국악콘서트 올림’

흥겨운 민요와 역동적인 비보이들의 춤, 그리고 강렬한 일렉트릭 연주가 신명나게 어우러진 국악 무대가 안방에서 펼쳐진다.

KTV(원장 류현순) 국악 전문프로그램 ‘국악콘서트 올림’(진행 박애리·연출 심봉근)은 14일 오후 5시10분 민요와 비보이가 만나 펼쳐는 퓨전 국악공연 ‘비보이와 함께 하는 아리랑꽃’을 방송한다.

‘비보이와 함께 하는 아리랑꽃’은 여성 민요단 아리수와 4인 록그룹 민하밴드, 비보이팀 디렘크루, 비트박서 샤키티가 함께 꾸민다.

2009년 창작국악의 대표적인 경연 무대인 ‘천차만별 콘서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10년 서울 젊은 국악축제 ‘청마오름’ 공연에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무대로 전국에서 많은 초청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백매이와 너영나영’으로 시작되는 민요 가락에 비트박스나 비보이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아리랑으로 이어지며 공연의 절정을 이룬다.

이날 방송은 지난달 27일 천안시청 봉사홀에서 1월 행복콘서트로 개최된 공연의 무대를 녹화중계를 통해 생생하게 전한다.

한편 정통 국악공연은 물론 퓨전 국악을 아우르며 우리의 소리와 꿈을 전하는 KTV ‘국악콘서트 올림’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10분 시청자를 찾아온다. /인진수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p>▷쥐띠 49년생: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운. 80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니 휴식이 필요한 때. 72년생: 자신을 낮추면 복이 되니 자랑하거나 공치사든 하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84년생: 매사에 주의가 기울이며 지중해야 할 때이다.</p>	<p>▷소띠 49년생: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운이다. 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 79년생: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수렴. 85년생: 위험은 삼가는 것이 좋다.</p>	<p>▷호랑이띠 50년생: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운. 62년생: 이렇스레에게 덕을 베풀어야 하는 운이니,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 86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모인다면 회합을 요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p>	<p>▷토끼띠 51년생: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필요.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결과적으로는 중으니 객관하라. 75년생: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운. 87년생: 헛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니 겉나게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은 불리.</p>
<p>▷용띠 50년생: 아랫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다. 62년생: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는 주변상황을 악화시킨다. 79년생: 금전운이 악화하니 투기는 금물이며, 금전을 주고받는 일도 중지한다. 88년생: 타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체면을 당할 수 있는 운.</p>	<p>▷뱀띠 53년생: 지금은 나날 시기가 아닌 위로 물러서서 지리든 지켜야 하는 운이다. 66년생: 손재수와 실용수가 따르니 금전관리며 유의. 77년생: 매사 회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운. 89년생: 정신이 뚜렷하고 뒤지 않으니 실수를 할 수 있다.</p>	<p>▷말띠 5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 마찰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매사 무자런히 움직이고 하고자 하는 일의 70%에 민족. 78년생: 자신을 낮추고 매사에 양보하는 듯 처신하라. 90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이익이 있는 운이니 신심 쓰는 것이 이롭다.</p>	<p>▷양띠 55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다. 67년생: 문서에 결심이 있으니 계획을 하려거든 마루지 마라. 79년생: 타인이 시비든 갈고도 맞서기니 대립하지 않는 것이 이득. 91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능력만큼의 일만 처리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건강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운이다. 68년생: 자신이 지나치게 공격적(적)에 처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 80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생기는 운. 92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요령을 피우기보다는 노련하고 열심히 임해야.</p>	<p>▷닭띠 57년생: 현운이 있으니 매사가 순리대로 잘 풀리겠다. 69년생: 매사 혼자 판단해서 혼자 행동하지 말고 상의하고 결정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81년생: 기존의 방식에서 전향점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93년생: 그동안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좋은 변화가 도래한다.</p>	<p>▷개띠 46년생: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줄 수 있으니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58년생: 허상된 일만 아니려면 작은 성가는 따르는 운이다. 70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이다. 8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즉각 처리하라.</p>	<p>▷돼지띠 47년생: 편법을 사용하면 후회할 일이 뒤따를 것이다. 59년생: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71년생: 신대를 앞잡이 보지 마라. 83년생: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매사에 꼼꼼하라.</p>